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인플레이션 둔화, 하지만 2025년 물가 요동칠 듯

[미국 금융]

- Bloomberg: 금리 결정 앞두고 미국 증시 낙관적

[트럼프 행정부]

- WSJ: 트럼프와 소프트뱅크 “미국에 1천억불 투자”

[에너지]

- Bloomberg: 유가 하락...중국 수요 약세 때문
- Bloomberg: 중국, 말레이시아에 1억5천만불 규모 태양광 기지 건설 계획

[중국 경제]

- Bloomberg: 중국 소비 둔화...지출 장려를 위한 부양책 필요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성장에서 좌초까지: GM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 또 하나의 실패한 성장 전략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Inflation Is Coming Down, But Prices Won't Stand Still in 2025

인플레이션 둔화, 하지만 2025년 물가 요동칠 듯

- Forrester Research의 수석 분석가 Dipanjan Chatterjee는 기업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가격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재정적, 심리적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 대신 동적 가격 책정(dynamic pricing)이 들어오고 있다. 소매업체들은 시간, 장소, 제품의 인기, 재고 등의 데이터를 고려해 실시간으로 가격을 조정한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정교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동적 가격 책정을 하는 소매업체이다.
- 하지만 소비자들은 동적 가격 책정을 반기지 않는다. Chatterjee는 “여름철 비행기 티켓이나 해변가 호텔이 비싸지는 건 일 년에 한두 번만 있는 예상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매번 장을 볼 때마다 가격 변동을 계산해야 한다면,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US Stock Optimism Builds Ahead of Rate Decisions: Markets Wrap****금리 결정 앞두고 미국 증시 낙관적**

- 이번 주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미 연준이 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 S&P500지수는 0.3%, 나스닥100지수는 0.6% 상승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37%로 상승했다. 올해 S&P500지수는 현재까지 27% 상승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친기업 정책과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랠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올해 달러는 6% 이상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5년에는 트럼프 정책과 연준 금리 인하가 달러에 압박을 가하면서 내년 중반을 기점으로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WSJ: Trump, SoftBank CEO to Announce \$100 Billion Investment in U.S. 트럼프와 소프트뱅크 “미국에 1천억불 투자”**

- 오늘 월요일, 트럼프 당선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CEO Masayoshi Son은 향후 4년간 미국 프로젝트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과 신기술에 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번 투자 발표는 핵심 공약으로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주 트럼프는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은 신속한 허가 절차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6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도 Son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대부분을 미국에 투자했었다.
- 하지만 사무실 공간 회사 WeWork, 건설업 Kattera, 로봇 피자 배달 업체 등 투자를 받은 많은 스타트업이 실패했었다. 따라서 이번 투자는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WSJ 기사

[에너지]

Bloomberg: Oil Slips as Lackluster Chinese Data Weakens Demand Outlook

유가 하락...중국 수요 약세 때문

- 중국의 수요 약세로 유가가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4달러,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약 71달러에 거래됐다.
- 11월 중국의 원유 정제량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석유 수요는 작년보다 2.1% 감소했다. 10월 중순 이후 유가는 중국의 경제 둔화에 따른 석유 수요 약세로 압력을 받고 있다.
- 트레이더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과 이란에 대한 제재가 유가에 어떤 리스크를 불러올지 우려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hinese Inverter Maker Plans \$150 Million Solar Base in Malaysia

중국, 말레이시아에 1억5천만불 규모 태양광 기지 건설 계획

- 중국의 인버터 제조업체 Ningbo Deye Technology가 말레이시아에 태양광 장비 제조 기지 건설에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인버터는 전류를 변환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태양광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가정용 교류 전기로 바꿔준다.
- Ningbo는 “국제 정세와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 생산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 국제 무역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규제를 피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동남아시아산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Bloomberg: China Consumer Slowdown Shows Urgent Need to Encourage Spending

중국 소비 둔화...지출 장려를 위한 부양책 필요

-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11월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약화되었다. 중국의 소매 판매는 작년보다 3% 증가했다.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 지난 분기 경제 성장률이 2023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대규모 금리 인하, 부동산과 주식 시장 지원책, 1조4천

억 달러 규모의 부채 스와프 프로그램을 시행했었다. 또한 최근 몇 달간 채권 판매를 통해 1천3백80억 달러 자금을 조달했다.

- 하지만 디플레이션을 해결할 만큼은 아니었다. 중국 소매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민간 수요는 여전히 약세다.
- 또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중국의 수출은 무역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 중국 수출은 경제 성장의 25%를 차지했다. 즉, 중국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 이에 따라 내수 진작을 위한 새로운 부양책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주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10년 만에 소비 지출 장려를 내년도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뽑았다.
- Saxo Markets의 수석 투자 전략가 Charu Chanana는 기업과 소비자 신뢰를 위해 더 많은 재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From growth to gone: GM's Cruise robotaxi business is latest growth initiative to falter

성장에서 좌초까지: GM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 또 하나의 실패한 성장 전략

- GM의 CEO Mary Barra는 GM을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미래 지향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여러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로보택시 사업은 8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 하지만 2023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이후 점차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지난주 화요일, GM은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 GM은 이제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핵심적인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크루즈 팀은 GM 기술팀과 통합되어 자율주행차 개발을 도울 예정이다.
- GM은 2016년 최초로 핸즈프리 시스템을 제공한 자동차 제조업체였다. GM은 더 개선된 운전 보조 시스템 개발에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
- GM이 떠나면서 현재 미국 로보택시 시장 선두 주자는 웨이모다. 웨이모는 LA, 피닉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량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마이애미, 애틀랜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CNBC 기사

[보고서]

트럼프 리스크에...경제학자들 "연준, 금리 많이 못 내릴 듯"

대다수, 내년 말 미국 기준금리 3.5% 이상 예측 트럼프 관세정책 등 인플레이 유발 우려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많이 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미국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내년 말 연준의 기준금리가 3.5% 이상에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9월 조사에서는 대부분이 3.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